

# 랑시에르의 민주주의와 ‘인민’

지성적 평등과 『프롤레타리아의 밤』

윤인선(한밭대학교)

랑시에르는 오늘날 정치, 문화, 예술을 전부 망라해 그 기저에 깔린 정치성을 ‘불화’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구축한 이론가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어떤 이상을 가진 초월적 실체가 아니라 기존의 합의를 깨고, ‘치안’에 의해 빠지거나 배제된 주체를 다시 셈하도록 재기입하는 ‘정치’과정으로 본다. 그에게 정치는 끊임없이 ‘몹 없는 자’가 기존의 ‘감성 분할’을 다시 쓰도록 기존 체계의 ‘잘못’과 불화해, 새로운 관계가 기입되도록 만드는 정치적 주체의 ‘주체화’과정이다. 그의 정치적 주체화는 “잘못을 다루며, 평등을 실행하면서, 기존 체계에서 몹 없는 자에 대한 분쟁의 공통적 위치를 형성한다.”

## 들어가며: 랑시에르의 정치적 주체

랑시에르의 정치적 주체는 끊임없이 역사적 상황에서 ‘소외된 몹 없는 자’의 불화를 토대로 정치 투쟁을 하는 주체이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주체, 즉 인민, ‘몹 없는 자’의 정치적 주체화의 끊임없는 행위이다. 그의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명칭이기도 하면서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 인민과 불가분적이다.

본고는 그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초기 저작에 집중하면서 그의 민주주의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주체와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진 인민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인민의 핵심적인 특성인 지성적 평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랑시에르의 인민과 민주주의의 관계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불화’의 정치를 옹호하기에 다른 어떤 이론가보다 민주주의 옹호자로 각인된다. 그는 플라톤의 원정치<sup>1)</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사정치<sup>2)</sup>에 반대해 민주주의 개념을 인민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인민이 자신을 분할하는 힘의 정도의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인민의 분할하는 힘을 강조한다. 이 인민의 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건과 체계의 불평등과 맞서 탈분류하고 탈동일화하는 분할하는 힘의 과정이다. 따라서 그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존재론적인 양상을 갖지 않는다.

랑시에르의 민주주의가 토대로 하는 인민의 분할하는 힘은 불화이다. 랑시에르에게 인민은 구체적 불일치에 의존하고, 끊임없이 감성의 분할을 재기입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쟁보다는 합의를, 그리고 최고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의 인종적 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공포를 이용하는 선진자본주의국가는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비랑시에르적인 정치체이다.

1) 사람들이 위계적으로 분류되어 각 계층의 사람은 본연의 속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  
2) “자체 안에서 자유와 안정성의 최적의 결합, 갈등을 완화하거나 통제하는 원칙을 갖는 정치”

## 지성적 평등과 프롤레타리아의 밤

랑시에르는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노동자들이 철학을 꿈꾸고, 평등의 이상을 향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철학자-시인임을 증명한다. 그는 노동자들이 철학하고 이상을 향해 투쟁하는 코뮤니스트였음을 발견했다. 그는 삶을 사는 모든 인민의 ‘지성적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삶의 갈등은 삶의 기본이며 정치는 그런 삶의 기본다. 삶의 갈등은 반드시 뭉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새로운 감각의 분할을 재기입하려는 시도를 야기한다. 랑시에르가 자코토에 대해 연구한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에서 단순히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아는 자/모르는 자의 관계로 학생은 끊임없이 아래로 전달되는 지식을 주워 담기에 급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비관계의 유추를 통해 앞의 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성적 평등’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식의 시학’은 지성적 평등에 입각한 시학으로, 모든 인간의 사회적 또는 인간적 담론에서 허구의 이야기를 또한 구성해 정치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재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미학과 정치학이 접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그것을 통해 인민과 민주주에 대한 자기 담론이 나온다고 말한다. 어떤 인간도 지성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플라톤처럼 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랑시에르에게 민주주의적 정치를 위한 역동성과 철학을 제공해 준다. 그런 절대적 평등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가 목격한 노동자의 삶과 열망에서 고취된 것이다. 그는 목수 고니가 노동자들이 쉬어야 할 밤에 쓴 많은 글과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랑시에르는 가진 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노동자인 고니에게 진정한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지옥, 시가 없는 지옥’의 노동자의 삶을 생각하는 아픔에서 온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랑시에르가 인용한 고니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형제여, 깨어나라. 다시 용기와 힘을 갖자.  
다쳤으나 자긍심 넘치는 군인들이여, 다시 전투에 나서자.  
네가 너의 마음 안에서 태동하는 너의 생각을 느낄 때  
무감각한 군중의 소음을 무시하라,  
시인은 감흥받았을 때 위력적이 된다.  
너의 이마에 이 기호: 지성을 받아주신 신은  
확실히 너를 위해 영광스러운 운명을 예비하신다.  
네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라, 너의 날이 가까이 왔다.  
앞으로 전진하라, 새벽별이 보이지 않느냐?  
아, 우리, 창조주 손에 의해 축복받은  
풍요로운 인종이 넘어진다면  
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겠는가?  
미래는 여전히 구원자의 피를 원하노라.

이 시에 대해 랑시에르는 “여기에는 하나의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는 황량한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처한 아이들에게 어떤 합법적인 유산을 되돌려준다. 이 유산은 노동자들의 세계를 재생시키는 소명이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계급이라기보다 인류애를 가진 하나의 인종이다. 새벽별이다. 외로운 밤에 행복한 종말이다. : 입문자들의 비밀스러운 밤으로부터 고통스럽게 빠져나와서, 아마도 기적의 새벽과 함께 동일시하며 구원되는 자들이 된다.” 우리는 랑시에르의 ‘인민’과 ‘프롤레타리아의 밤’이 ‘지성적 해방’이라는 자코토의 교육 방법과 긴밀히 연결되며, 그것이야 말고 랑시에르가 1980년대 이후 정치성을 잃

어가는 현대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 다시 고찰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임을 알 수 있다.

### ‘알튀세르의 교훈’과 ‘랑시에르의 교훈’

랑시에르는 현대에 들어와 합의정부 또는 사회적 공포의 방어책으로서 일반적으로 날뛰기만 하는 민주주의의 대한 혐오를 애석하게 바라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와 동일시하는 담론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 현상을 민주주의 자체의 투쟁적 면모, 잘못에 대한 인민의 새로운 분할의 재기입이라는 정치적 근간을 빼내 탈정치화는 포스트-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본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투쟁적 면모와 정치를 현대의 사회적 또는 심리학적 차원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핵을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랑시에르는 포스트-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보는 민주주의 범죄, 즉 ‘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혐오를 엘리트들의 명제라고 말한다.

랑시에르는 이데올로기와 진실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반대하고, 인민이 발설하는 어떤 주장을 그런 이분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온 배경, 잘못의 배경을 살펴 그것을 뭉 없는 자의 측면에서 재기입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잃기 커녕 민주적 주체를 가리키게 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과학성을 살리기 위해 아무리 과학적 차원을 강조해도 인민을 중심으로 한 계급 이야기를 떠난 과학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알튀세르의 교훈’은 투쟁적 또한 혁명적 담론, 즉 인민 또는 ‘뭉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 자체에 몸담지 않은 담론은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오히려 부르주아적 차원에 머물거나 아니면 엘리트적 경향을 띠어 혁명적 담론의 반대적 차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